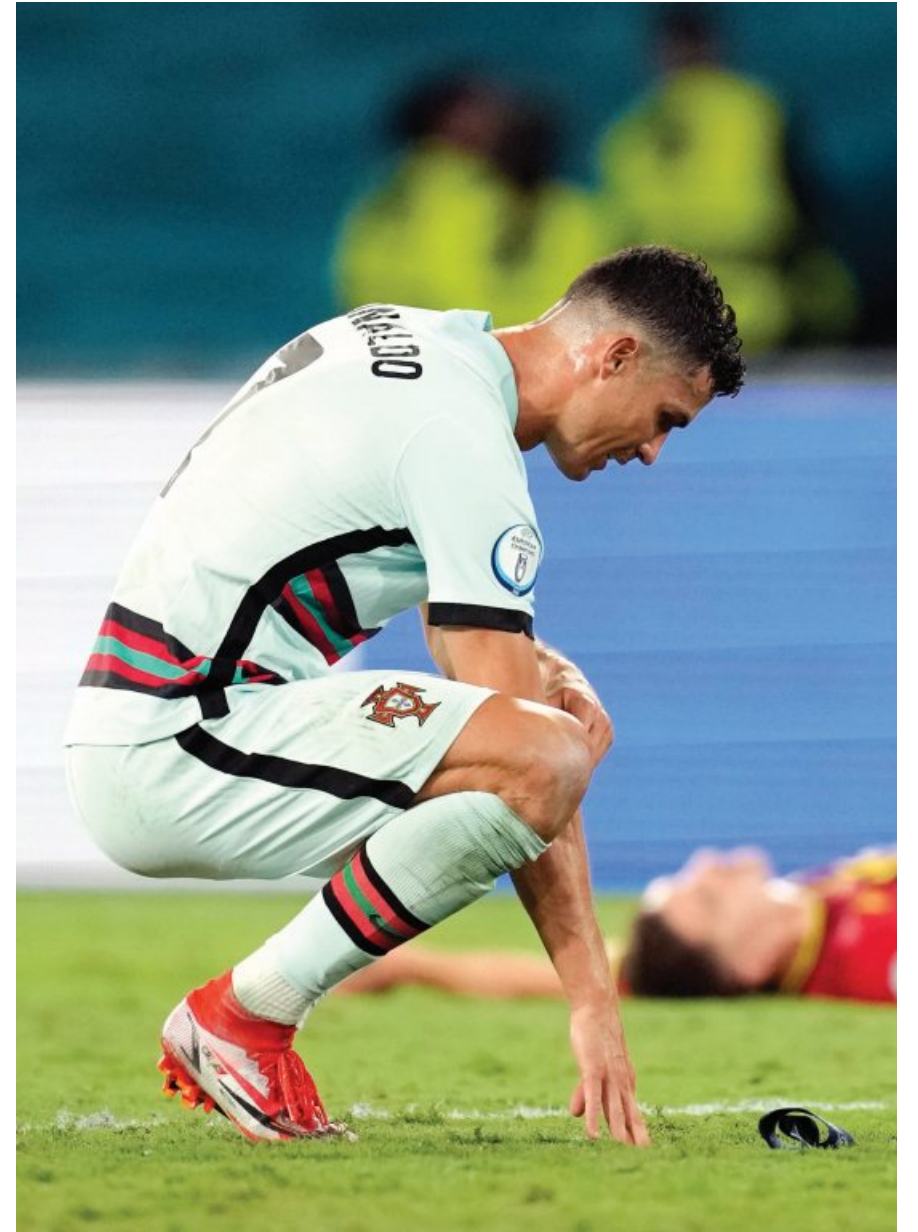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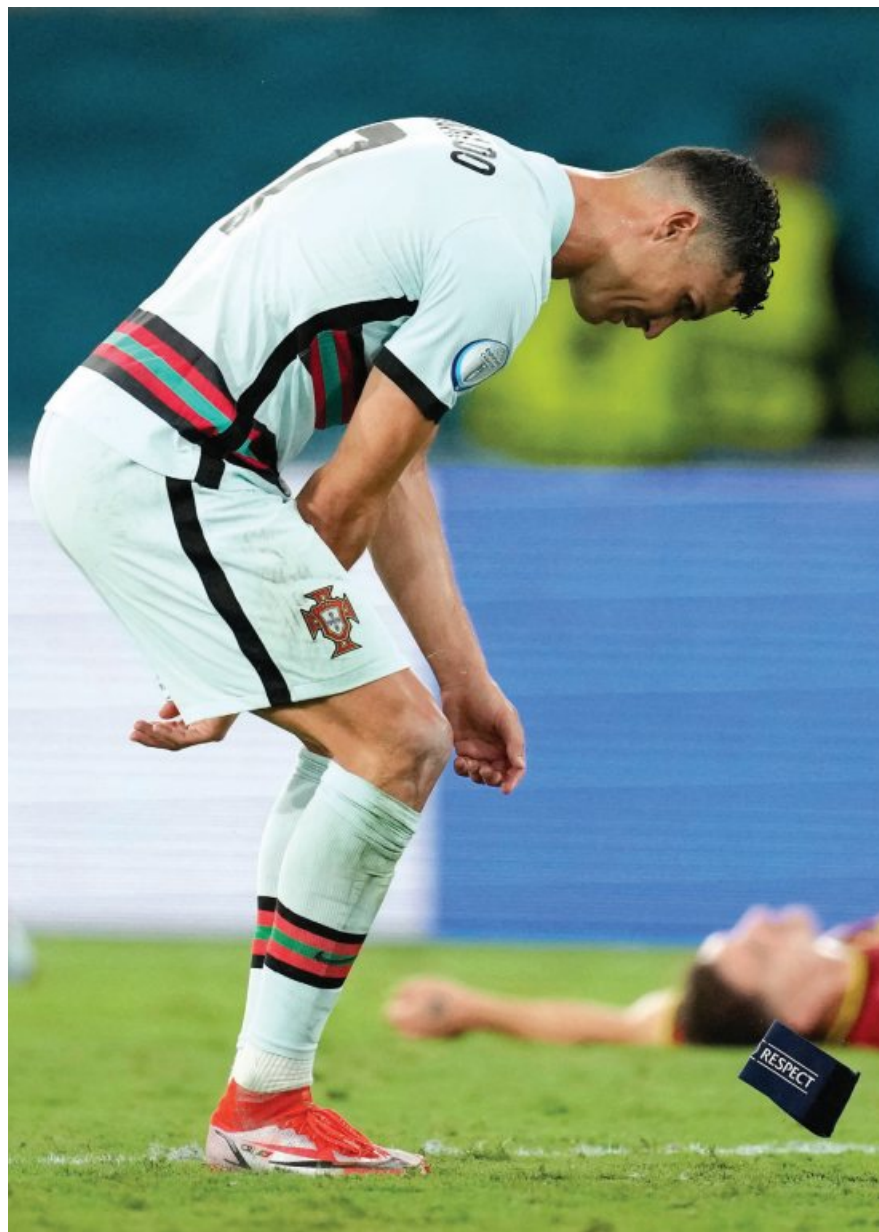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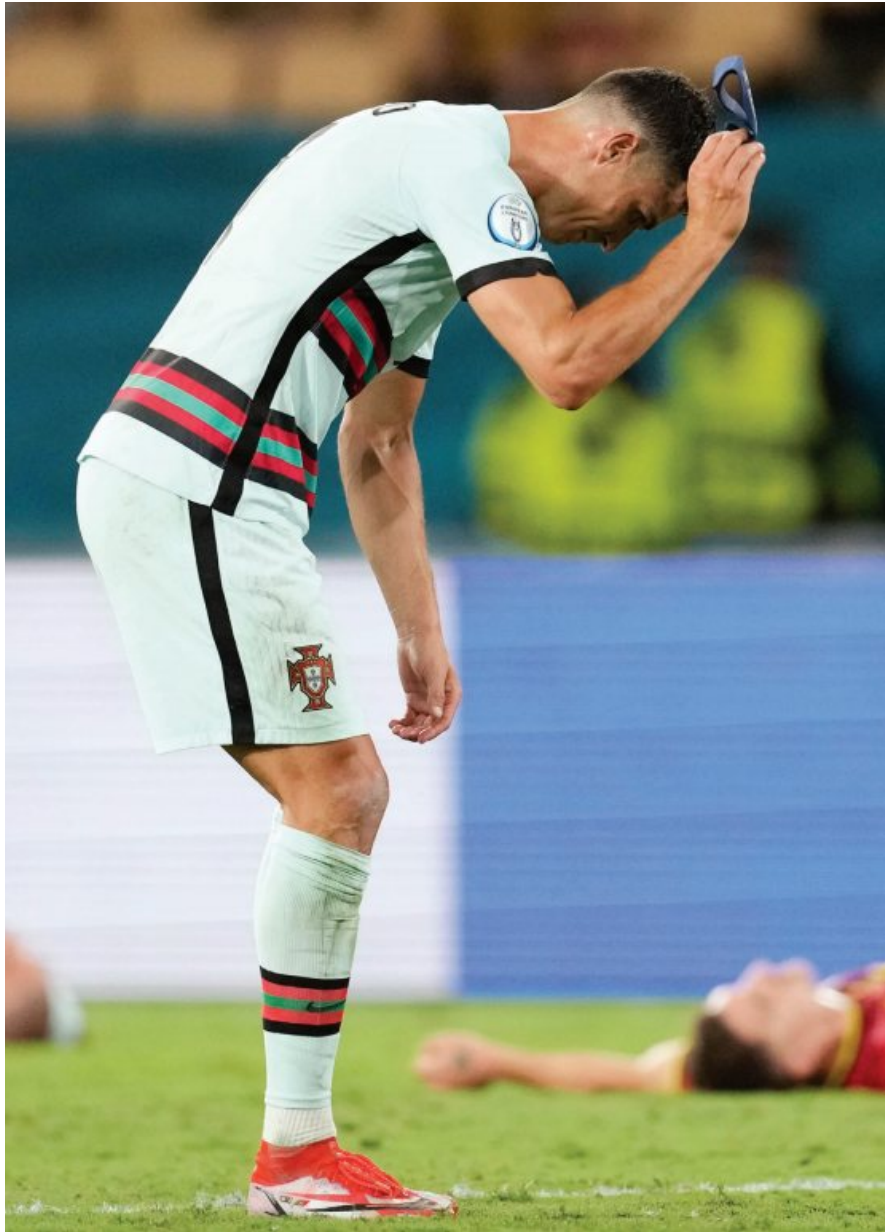


## 디펜딩 챔프 포르투갈 유로 '아웃' ... 주장 완장 내던지고 주저앉은 호날두



28일 스페인 세비아의 올림피코 데라 카르투하 경기장에서 열린유로2020 16강전 경기에서 디펜딩 챔피언 포르투갈의 주장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벨기에에 0-1로 패배한 뒤 완장을 내던지며 좌절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호날두 집으로 ... 벨기에, 포르투갈 꺾었다 네덜란드 허망한 탈락 ... 체코에 0-2 '덜미'

### 유로 2020 16강전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벨기에가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버틴 디펜딩챔피언 포르투갈을 꺾고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8강에 올랐다.  
벨기에에는 28일 스페인 세비아의 올림피코 데라 카르투하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전반 42분 터진 토르강 아자르(도르트문트)의 결승골로 포르투갈에 1-0으로 이겼다.  
벨기에에는 2016년 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8강에 진출했다.

유로 2016에서 이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던 포르투갈은 대회 2연패가 일蹴 좌절됐다.  
만 36세인 호날두의 마지막 유로가 될 수 있는 대회에서 패배는 더욱 뼈아프다.  
조별리그에서 5골을 넣으며 알리 다에이(이란)와 A매치 최다 109골 타이 기록을 쓴 호날두는 이날 침묵하며 신기록 작성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포르투갈은 이날 총 슈팅에서 23-6으로, 유효 슈팅에서는 4-1로 앞서고도 결정적인 득점으로는 연결하지 못했다. 호날두는 전반 중반에 나온 예리한 프리킥 슈팅을 비롯해 4차례 슈팅을 날렸으나 득점에는 실패했다.

반면에 벨기에에는 딱 한 번의 유효 슈팅을 득점으로 만들었다. 전반 42분 토르강 아자르가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오른발 아웃프린트로 찬 슈팅이 골문 오른쪽을 갈랐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푸슈카시 아레나에서는 체코가 10명이 싸운 네덜란드를 2-0으로 제압하고 8강에 진출했다. 네덜란드 센터백 마테이스 데리흐트(유벤투스)가 후반전 초반 상대 스트라이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와 경합하다가 넘어지며 공을 손으로 쳐내 레드카드를 받았다.  
팽팽했던 흐름은 체코 쪽으로 확 쏠렸다.  
체코는 후반 23분 토마시 홀시(프라하)의 득점으로부터 앞서나갔다. 오른쪽 코너 부근에서 올라온 프리킥 크로스를 토마시 칼라스(브리스톨 시티)가 머리로 넘겨준 것을 홀시가 다시 헤더로 마무리했다.  
후반 35분에는 네덜란드 진영에서 홀시가 공을 탈취해 왼쪽을 파고든 뒤 킥백을 넘겨주자 시크가 왼발로 골망을 흔들며 2-0 완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

## 김효주 KPMG 3위...도쿄올림픽 티켓 한국, 고진영·박인비·김세영 4명 출전

김효주가 여자골프 메이저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총상금 450만달러)에서 공동 3위를 차지하며 도쿄올림픽 출전을 확정했다.  
김효주는 28일 미국 조지아주 존스 크리크의 애틀랜타 에슬레틱 클럽(파72-6831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쳤다.  
김효주는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지올리아 몰리나로(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이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 중 최고 성적이다.  
이로써 김효주는 고진영, 박인비, 김세영과

함께 도쿄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  
도쿄올림픽 출전자 명단은 이 대회가 끝난 뒤 발표되는 28일자 세계랭킹에 따라 정해진다. 세계 15위 안에 드는 선수는 최대 4명까지 올림픽 무대에 설 수 있다. 21일 기준으로 고진영, 박인비, 김세영은 세계랭킹 1·2·4위로 사실상 도쿄행을 확정된 상태였다.  
김효주는 세계랭킹 8위로 16위인 유소연과 마지막 티켓을 두고 경쟁했지만, 올 시즌 메이저 최고 성적을 거두면서 도쿄행 티켓도 거머쥐었다.  
우승은 넬리 코르다가 차지했다. /연합뉴스

# KIA '산 넘어 산' ... 올시즌 전패 NC·두산과 홈 6연전

## T 타이거즈 전망대

지난 6경기 팀 타율 0.169  
6패 한화 덕에 최하위 면해  
브룩스 복귀에 마운드 희망

'호랑이 군단'이 산 넘어 산을 만난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주 KT 위즈와 키움 히어로즈를 만나 단 1승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6이닝 1실점으로 6경기 연속 켈리타스타를 기록한 임기영을 앞세워 KT에 2-1로 진압승을 거두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역전패와 끝내기패 등이 기록됐다.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은 한주였다.  
지난주 6경기에서 이닝당 평균 1.76명의 주자를 내보낸 KIA는 38명의 주자에게 홈을 허용하면서 6.57의 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뜨거웠던 마운드, 방망이는 차가웠다.  
지난 6경기에서 KIA의 팀 타율은 0.169에 그쳤다. 한승택이 25일 키움전에서 시즌 첫 홈런을 날리며 그나마 자신심은 지켰지만, 여전히 22개로 팀 홈런 꼴찌다. 반대로 키움과의 3연전에서는 서건창에게 2개의 홈런을 맞는 등 5개의 피홈런을 허용하며 '한방'에서 분위기가 갈랐다.  
지난 6경기에서 18점을 만드는데 그친 KIA는 '5'를 찍었다.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KT	67	40	0	27	0
2	LG	70	41	0	29	0.5
3	삼성	70	40	0	30	1.5
4	SSG	67	37	1	29	2.5
5	NC	68	35	2	31	4.5
6	키움	71	36	0	35	6.0
7	두산	68	33	0	35	7.5
8	롯데	68	28	1	39	12.0
9	KIA	67	25	0	42	15.0
10	한화	70	26	0	44	15.5

특히 앞선 대결에서 5연승을 달렸던 키움을 상대로도 싹쓸이 3연패를 기록하는 등 4연패로 한 주를 마감했다.  
저조한 성적에도 6패를 기록한 한화 덕에 최하위는 면했다.  
투·타 모두 마음잡지 않았고 4개의 실책도 기록됐다. 기록으로 남지 않은 실수도 있었다. '막내' 이의리가 출격했던 22일 KT전에서 1루수 황대인과 좌익수 오선우의 아쉬운 수비가 나왔지만 모두 안타로 기록되면서 이날 기록된 4실점은 모두 이의리의 자책점이 됐다.  
지난주 나지완-류지혁 그리고 박찬호가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이들의 가세가 극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키움전부터 합류한 박찬호가 그나마 9타수 4안타와 함께 수비까지 모두 소화했지만, 나지완과 류지혁의 움직임은 아직 무디다. 각각 결승타와 제

치있는 주루 장면도 남겼지만 지난 주 두 선수는 3개의 안타를 합작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설상가상 나지완은 오프닝 통증 재발로 28일 다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위의의 상황에서 KIA는 안방에서 '전적'을 만난다. 주중 NC 다이노스와의 대결에 이어 주말에는 두산 베어스와 맞대결이 진행된다. 올 시즌 단 1승도 가져오지 못한 상대다.  
NC와 5번 만나 모두 패배를 기록했고, 두산에도 4전 전패다. 지난 시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두산 전 9연패 중이다. KIA는 특히 지난 시즌까지 2년 연속 두산에 3승 13패의 열세를 보였다.  
그나마 희망은 초읽기에 들어간 브룩스의 복귀다. 브룩스는 27일 불펜피칭을 소화하면서 최고 147km까지 기록했다. 29일 피칭 뒤에도 몸 상태에 이상이 없다면 7월 1일 NC전을 복귀 무대로 삼을 예정이다.  
KIA는 키움과의 3연전에서 선발진이 11.1이닝을 합작하는 데 그치면서 어려운 선발 싸움을 했다. 브룩스의 가세는 KIA에 천군만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완벽한 몸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우선이고, 공백이 길었던 만큼 바로 100%로 전력을 활용하기는 어렵다.  
결국 불펜진의 역할과 벤치의 마운드 운영이 중요하다.  
KIA는 지난주 김유신을 불펜과 선발로 동시에 투입하는 '변칙운영'을 했다. 하지만 두 경기에서 모두 KIA는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결과가 좋지

못했다.  
'위기 상황'이지만 1승 1승이 중요한 막판 선두 싸움을 하는 상황도 아니다. 냉정하게 보면 KIA는 '가을잔치'라는 꿈같은 목표보다는 시즌을 길게 보고 자리에 맞게 선수를 육성하고 키우는 결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순리대로 경기를 풀어가면서 전력을 가다듬고 다음 목표를 생각해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결승선에서 미래라는 소득이라도 얻을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챔스필드 관람객 70%까지 입장 가능

### 최근 3경기 관중 2414명 '썰렁'

새로운 거리두기에 따라 챔피언스필드에 관람객이 최대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KBO리그 관람객 인원이 7월 1일부터 확대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역은 수용인원의 7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2단계는 5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고, 3단계는 30%로 조정된다. 4단계의 경우에는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실내 구장인 고척 스카이돔은 1단계 60%, 2단계 40%, 3단계 20%까지 관중 입장이 이뤄진다.  
27일 발표된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수도권 광주는 1단계가 되면서 챔피언스필드 관중석은 최대 70%까지 개방된다.  
수도권은 2단계 적용을 받고, 대구시는 29일 별도로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내려진 정부 지침에 따라 현재 KBO

리그의 관중 입장 비율은 거리두기 1.5단계 지역 50%, 2단계 30%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면 7월 1일부터 구단별로 관중 수용 규모를 상황 조정할 예정이다.  
전국구 인기 구단으로 통했던 KIA는 입장인원 상황 조정에도 울상을 짓고 있다.  
올 시즌 25승 42패(승률 0.373)의 전적으로 한화와 '최하위 싸움'을 하면서 관중수가 급감했다. 앞서 진행된 홈 31경기에 5만8868명이 찾아 평균 관중은 1898명을 기록했다. 특히 더블헤더 포함 최근 홈경기가 진행된 16·17일에는 날씨 영향까지 겹쳐 573명, 916명, 925명이 입장하는 등 3경기 총 관중이 2414명에 불과했다.  
KIA는 지난주 KT, 키움과의 원정경기에 응원단을 파견하는 등 관중불이에 고심하고 있지만 지난 한 주 1승 5패의 성적에 그치면서 관중석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